

■ 이수영의 꼬부랑소리 - 인터뷰



주한 영국 문화원 어학원장
마크 하워드씨가 말하는
한국의 IELTS 시장
현황과 문화원의 역할

주한 영국 문화원 어학원장인 Mr. Mark Howard씨를 인터뷰하기 위해 서울 신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아이들이 우르르 떼를 지어 영어수업을 받기 위해 교실로 이동하는 모습에서, 문화원의 생동감을 느끼게 하였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한국의 IELTS 시장현황과 IELTS를 알리기 위한 문화원의 역할 등을 알아보려고 한다.

인터뷰는 한국의 삶에 대한 Mr. Howard씨의 소감과 느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그는 가족과 함께 3년 전에 한국으로 이주하였으며 한국인 가정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에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이는 영국 문화원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과 동일하였기에 그로 하여금 한국의 생활을 더욱 더 즐겁게 만들었다고 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이 있는 그는 한국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국가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다. 문화원에서 그의 역할은 주로 영어교육에 주력을 두고 있지만, 양국간의 예술과 문화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많은 일들을 한다고 했다.

영국문화원 기관은 1930년대부터 존재해 왔었고 1973년에 한국에 설립되었으며, 아이엘츠는 전세계적으로 1989년에 만들어진 시험으로 같은 해에 한국에도 IELTS가 도입되었다. IELTS는 세계적으로 널리 인증된 시험제도로 매년 백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응시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TOEFL과 TOEIC을 응시하는 학생들의 숫자와 비교한다면, 그 숫자는 미미하다고 한다. 그 점이 Mr. Howard씨로 하여금 한국시장에 아이엘츠를 보급하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점이지만, 영국문화원의 지속적인 홍보에 힘입어 2008년에는 아이엘츠를 응시했던 학생들이 대략 26,000명에 달해 한국에서 어느 정도 아이엘츠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

TOEFL과 TOEIC이 대세인 한국시장에 어떻게 해서 아이엘츠를 보급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Mr. Howard

씨는 아이엘츠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 언급하였다. 첫째, 아이엘츠는 인증된 시험제도로써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를 포함한 전 세계 6,000개 이상의 기관에서 아이엘츠를 영어능력 평가의 지표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두 번째, 아이엘츠가 다른 시험제도와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Speaking Test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상 생활의 모든 상황에 관한 대화를 직접 시험관과의 interview로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아이엘츠 시험은 학생들이 영어시험에서 고득점을 얻고서도, 현지생활에서 학습의 어려움과 그곳 생활의 정착에 실패하는 일반적인 영어시험제도 가 아닌,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제도이다.

일부에서는 IELTS Speaking 시험시간이 15분 내외로 그 짧은 시간 내에 수험자의 영어 말하기 실력을 평가하는 데 충분한지에 대해 의아심을 갖는다고 한다. 그래서 영국문화원 어학원장인 그에게 이와 관련된 질문을 했고 그는 수험생과 오랜 시간을 두고 Speaking을 평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시험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15분 정도라도 수험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데 충분하다고 말했다. 긴 시간의 Speaking Test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특히 band score 5점 혹은 5점 이하의 능력을 가진 수험자들에게는 고무적인 시험측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특히 시험관들이 정확하게 명기된 시험평가 기준에 따라 수험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므로 Speaking 시험에 대하여 우려할 점이 없다고 말했다. IELTS 시험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이엘츠 밴드스코어 9.0 수준이어야 하며, 인증된 TESOL 자격을 갖추고도 TESOL 자격 취득 이후 최소 3년 이상의 EFL Teaching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게다가, 시험관들은 그들의 능력이 시험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구수준에 적절한지를 정기적으로 평가 받는다고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고, 이는 학생들이 그들의 시험 결과가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언급했다.

미래의 한국 아이엘츠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이엘츠 시험평가 내용과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동이 없으리라고 했다. 또한 아이엘츠가 점차적으로 한국시장에 퍼져 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이엘츠는 이미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미국 명문대학에서 영어인증 시험제도로 채택되고 있다고 한다. 다만 한국시장에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이엘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국문화원은 정부와 기업간의 긴밀한 협조관계와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대학교와 기업에서 인증될 수 있는 시험제도로 채택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비록 그 길이 평탄하지 않을지라도 한국인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The British Council building in Korea is a hive of activity as we wait to see Mark Howard, the director of English Language Services: Children rush off to basic English classes as we walk towards his office. However, we are here today largely to talk about IELTS in Korea and the British Council's role in promoting it.

We start with a brief chat about living in Korea, Mark has lived there for three years with his family, and he enthuses about the emphasis that Korean families place on education. This has certainly made his stay more pleasurable given the British Council's emphasis on education. Having young children, the safety of Seoul considering its huge size was also a big draw-card. His role at the British Council focuses mainly on language learning but the British Council itself has a much broader role in helping exchange art and culture between Great Britain and Korea. The efforts of the British council



이수영 작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서울 아시안게임 올림픽게임 중역
Mirmetals Korea Co. Ltd. 영어, 중국어 의전부
뉴질랜드 Ministry of Education 주관
Reading support programme (TESOL관련)

have aided several Korean acts to appear at the Edinburgh arts festival and thus gain worldwide recognition.

The British Council organisation has been in existence since the 1930s and first appeared in Korea in 1973*and while after of its foundation in Korea, IELTS first took place in 1989.. IELTS is the world's largest English testing system with over one million students sitting the IELTS test each year. However, in Korea, it pales in comparison with the number of students taking TOEFL and TOEIC – a situation Mark understands but one that makes his job a bit more difficult. However, through hard work IELTS has secured a moderate share of the market with around 26,000 Koreans taking the test in 2008. So how can IELTS fit in a market so dominated by TOEFL? According to Mark, IELTS has several advantages. Firstly, the I in IELTS stands for International and the IELTS test is designed to be a truly international test with a variety of accents and spellings from the US, Britain, Australia and New Zealand being tested and accepted. Secondly, the key difference is in the face to face discussion with the examiners. This, Mark says, is designed to be just like the real world where dialogue takes place between two people. Therefore IELTS tests a student's ability to communicate, not just beat the test.

Some people have raised concerns about the speaking test, mainly to do with the length of the test. We put it to Mark to explain whether he thought 15 minutes was sufficient to determine someone's English speaking ability. Mark agreed that the longer someone talked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the examiner would have for their communication ability, however, this has to be balanced with practicality. A longer test would cost more and would be very discouraging for a person at IELTS level 5.0 or below. Mark also testified to the rigorous marking procedure that assessors have to follow. People who wish to be an IELTS tester must have achieved a level 9.0 in IELTS, have an undergraduate degree, a recognised TESOL certificate and a minimum of three years' teaching experience post full-time TESOL program. On top of this, the testers are checked regularly to ensure that they are meeting the marking standards demanded. These tests are strict in order to assure students that their results are going to be as accurate as possible.

So what is in the future for IELTS in Korea? There are no changes planned for the test itself but the old 90 day stand-down period between tests has been lifted. So now, if you feel you have had a bad day during your IELTS test, you don't have to wait three months to retake the test. Mark also hopes that IELTS will gain a greater market share in Korea. IELTS is already accepted in many top universities in the US, including all the Ivy league schools. It just needs more recognition in Korea. To boost the recognition of IELTS, the British Council has been working with the government and business in Korea trying to gain acceptance for the qualification in schools and companies. It will be a tough road but the British Council is committed to improving the English language ability of Koreans.

- Mark Howard
Director of English Language Services
British Council, 4F Hungkuk Life Insurance Building
226 Shinmunno 1-ga, Jongno-gu, Seoul, Korea
(Interviewed by 이수영, Liam Heppleston)